

buddhanews.com

무(無)의 세계의 문 아닌 문은 논리가 불지 않습니다

25면에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아하, 고마워' 허허하... '이 나 무 한 단 빼놓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랬구나! 참 이렇게 신기한 법이 어땠는가. 내 몸은 모두 너의 시지일 뿐이야. 시자를 뜻하게 자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하나 빼고선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 움막 살이나, 왜 예전에는 땅속으로 파서 하는 걸 움집이라고 그러죠? 네?

사회자 음집...
크스님 음집, 네. 그런 걸 봐도 그렇고, 다리 밑을 가다가 비 안 맞을 정도로 돼 있는 데를 보면 그것이 아주 싱긋이 웃어지고 좋았지, 좋은 집을 보고 웃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삼막사의 길을 가다가 '아하, 이것도 착이로구나! 그걸 좋아하는 것도 착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두 생각을 해 볼 때에 '나를 버리면 성공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두 자기가 힘이 없이 지금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살아오던 집착에 의해서 번뇌라고 할까 그것이 그대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돌아가더라도 내가 아주 죽었다면 그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버렸다면 말이지. 내가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버려져서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미!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 가서든지 이 말은 빠짐없이 합니다. '고정되게 볼 수 있느냐? 고정되게 듣고 있느냐? 고정되게 움직여지느냐? 아버지 노릇만 하느냐? 남편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형 노릇도 하고 아우 노릇도 하고 이리저리 없느냐?' 그러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걸 좀 보세요. "아버지!" 하나가 뭐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 하고 대답을 하고 맞아들이는 그 아버지가 자기겠습니까? "어보!" 할 때 남편으로서의 자기가 자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연기법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연기의 공법을 그대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남답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바로 다니고 받은 거꾸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든지 바로든지 내가 그 등근 모두를 다 알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니까 우리가 바로 서서 다니는 거 같지만, 때로는 거꾸로도 되고 때로는 바로도 돼요. 수시로 돌아오. 그런데 착이 앞에 가려서 마음이 거길 따라설 수가 없어요. 이게 비어야 되는데.

종교라는 걸 떠나서 불교라는 것은 불(佛), 즉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리고 교(敎)는 우리 생활,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어디 떤 데 있거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불도 생명이 있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체를 먹고 사는 거죠. 그것으로써 이렇게 생명체를 가지고, 생명체가 있으니까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람으로 흩어지고 물로 흩어지고 원기로 흩어지고 흙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내 군데로 흩어져서 돌아가는 거죠.

의정도 여러분이 떤 데서, 즉 책에서 찾으려고

리라도 부처님 법문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푸른 산은 그대로 다 부처님 모습이에요. 흘러가는 푸른 물은 다 부처님의 설법이고요. 이 모두가 아니 닿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까?

팔자 운명도 없으니 내가 생각해서 내가 흐트하게 살고, 내가 잘못해서 그 고통을 받는 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벗어나야죠. 어떤 때는 남을 믿고 이름을 빌려 줬는데 부도가 나서 다 망했다고 그래서 "여기 언제부터 다녔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딱이 보지 않던 거, 자기가 써 보지 않던 거, 보지 못한 것들을 귀뜸을 해 주면은 요 다음에 죽어서 이 세상에 아무 몸이나 받아 가지고 나와서 또 꼭도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팔 팔 뛰고 아파서 울고, 두드러며 울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나는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섬기며 중간에서 이렇게 살면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울고, 안 돌아가셔서 울고... 허허하... 정말이에요. 늦도록 안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주

가 나가든지, 한 달을 지냈나 나가든지 나가는 거는 외려 더 이자를 붙여서 나가요. 그러니 내 것이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젊어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꾸 잃지만 놔두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천 년 만 년 수만 년 이 가도 자기 거예요. 전부. 그 왜 도둑맞게 잃어지고 다니니까? 끌어다 놓으면 도둑놈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왜 한 푼이라도 내가 잃어지고 다니니까? 안 잃어지고 다녀도 쓸 때 되면 다 들어오는 거, 다 주는 거, 그 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준 사람들에게 공덕을 입게 하는 거거든요. 공덕이 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대장부로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아주 어려운 고학생한테 돈을 한 보따리를 줬더니 "너 이 돈을 사흘 만에 다 쓰고 오너라." 이랬습니다. 그래, 나가서 십 리, 이십 리를 걸어가서 몽땅 쓰러니 어떻게 다 쓰니까, 그 많은 돈을. 예전에는 차가 그렇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돈 준 사람의 이름으로 학교를 지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더라는 얘깁니다. 그 이름 앞으로 몽땅 다 쓰고 자기는 속삭였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돈 준 사람이 말입니다. "너도 생각을 해라, 심부름꾼도 생각을 해 줘야 어찌 안 해 줬느냐. 그 돈에서 우선 양복 한 벌은 사 입고, 구두 하나 사 신고, 모자 사 쓰고 그러고 가지, 이 명창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등을 두드리면서 "너는 진짜 사람이구나!"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사람이 마음이 정갈하면, 정갈하다는 건 '정정하다' 이런 말도 되죠. 그런데 바다에 말입니다. 구경물이나 모든 요물이 안 들어간다면 바다라고 할 게 없죠. 어떤 요물이 들어간다고 시 간이 지나면 다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다' 이라면 작은 우물과 같고 연못과 같지만, '한 바다' 이렇게 하면 구경물, 깃물, 고름물, 흙물이 다 들어가도 그 바닷물이 다 수습해서 맑은 물로 되거든요. 그것을 정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를! 나쁘고 울고, 더럽고 깨끗하고, 짙고 길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걸 몽땅 한데 합쳐서 우리가 동글릴 수 있어야만 그게 청정이란 얘깁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토론할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12월 7일 법체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성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성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되는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이 양 갈래길을 다 자기 한손에 쥐어야만이 그걸 부처님 공법이라 합니다!

하지도 말고, 나한테 물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당신, 그 광대한 묘법의, 내면세계의 너만이 알려 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자꾸 두들기란 말입니다. 닫은 문을 열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선승(禪僧)이 될 수도 없거나 그 공부를 못 해요. 그건 논리에 의해서 문이 있고 없는 거지만 이 무(無)의 세계의 문 아닌 문은 논리가 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자유대로 문이기 때문에, 이 허공이 모두 탁 터졌기 때문에... 인생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한 걸 살면서 이 도리를 배워서 알아 가지고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어야,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하면서 아마 우주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모두들 생각하는 것이 살아오던 습 때문에 살아오던 습의 차원에서만 뱅뱅뱅 돌아오. 허허하... 생각들이 말이에요. 좀 엉뚱하게, 좀 기발하게 건너뛸 수는 없을까... 그게 아쉽죠. 그거 뭐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건너뛰지를 못해요? 삼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한참 나예요.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삼백 년 전이라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주에 있다면 우주를 조그맣게 축소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묘하고 찬란한 이 한도량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유, 저 스님은 도대체 부처님 경전을 읽어 주지는 않고 왜 저런 말씀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예? 경전에 있는 부처님 설법은 왜 안 해주나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다못해 둘 한 조각

러거든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해서 좀 여유 있게 살면 좋지 않겠소?"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강가에 가서 혼자 의연하고 아주 태평하게 앉아서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삶의 보람이 있는 거지 만날 뛰고 만날 그냥 허덕허덕하니 그놈의 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방에만 있다고 해서 '산책도 하고 어디 구경도 나가고 그러지, 한 칸 되는 방구석에서 서만 있나.' 이러겠지만 난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내 겹테기는 거기 두고 나가요. 이 법당에 내가 안 오는 줄 알죠? 허허하... 그래도 가끔은 온답니다. 왜냐? 돌이 아닌 까닭이죠. 그렇다고 꼭 육체로 오는 것만이 오는 건 아니죠. 거기서 보고 있으면 벌써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올리고 있거든요. 허허하... 가지가지로 옹도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다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보살을 놓아 가지고 보살을 제각기 자유스럽게, 지장은 지장대로 지장이고, 관세음은 관세음이고, 약사는 약사고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서 그냥 응신(應身)으로 화(化)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백 사람이 깨웠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예요. 그렇게 좋은 거죠, 너 나 할 거 없이.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겠네. 그러니까요. 내가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좋고 있을 테지만 말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들이 놓으면 언젠가는 머리에 스쳐 간단 말입니다. 모든나 하더라도. 요다음 세상에 나올 땐 '아,

니가 안 돌아가셔서 걱정, 빨리 돌아가셔서 그리워서 걱정, 이거는 그냥 매사가 사는 게 전부 그래요. 거기서 조금 '나'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한 철 구름같이 살다가 구름같이 떠가는 거, 이 도리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계셔도 태자로 나왔을 때 '왜 사람은 병들고 늙고 죽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정말 사는 거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도 늙어 죽으니깐, 조금 왕으로 있어 봤자 신통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병들고 죽을 걸 그까짓 거 몇 알갱이 산다고 내가 이거를 맡아?' 하고 그냥 나간 거죠. 허허하...

그래 나가서 자기를 자기가 알고 보니까 '아하, 이렇게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 꼭 알아야 할 일 그리고 꼭 담당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이 진짜 자기 선장을,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늘이 지금 무너져서 가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주 깔깔 웃고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깔깔 웃을 겁니다.

나는 어디서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돈이 됩니까? 내가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돈이 오질 않아요. 주인공에 맡기고 오직 주인공에 서부터 나에게 그냥 스스로 갖다 주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어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 돈이 나한테 늘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서 내가 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한 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되나가요. 하루를 지냈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한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터진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제8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 ◆ 초급반 (3개월) : 시율(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 중급반 (3개월) :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 고급반 (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 특수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실품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거에맞는 스님들음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립니다.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수행도우미

기본종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름 즉시 매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토틸
질수명,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뱃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매소

청명고이 (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필수 피로완전 매소

[호락호락센터, 와신삼매요, 보석연꽃센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예인(손목, 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주문도매인 : www.법왕정사.kr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실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구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